

기독교 대학생, 신앙 깊을수록 일상 만족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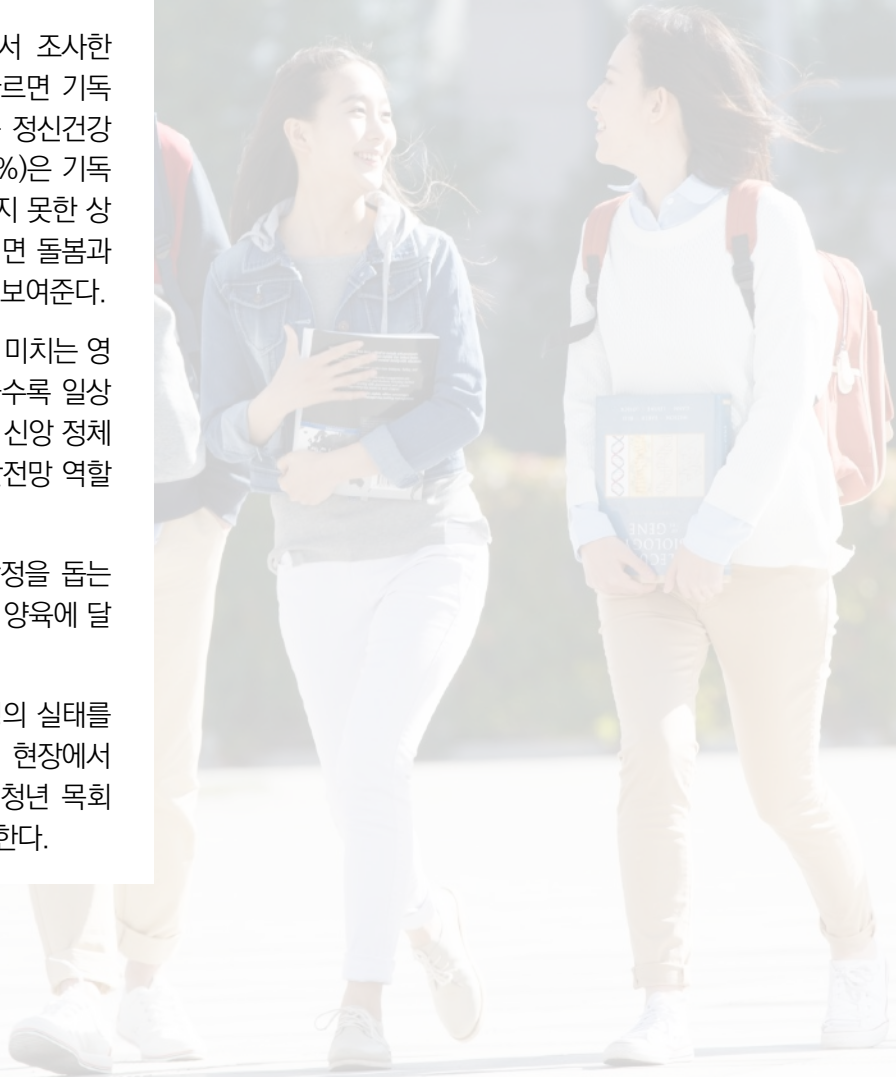
캠퍼스 복음화의 주역인 기독교 대학생들의 삶과 신앙 상태는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작년 10월 한동대 의뢰로 지앤컴리서치에서 조사한 '대학생의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생 10명 중 4명(37%)이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특히 4명 중 1명(25%)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다. 이는 캠퍼스 사역이 개별 영혼의 내면 돌봄과 본질적 복음 제시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신앙의 성숙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기독교 청년의 경우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일상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확고한 신앙 정체성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독교 대학생 사역의 성패는 정서적 안정을 돕는 목양적 접근과 신앙의 내실화를 꾀하는 질적 양육에 달려 있다.

이번 <넘버즈 326호>가 단순히 기독교 대학생의 실태를 수치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사역 현장에서 정신 건강과 복음 전파를 결합한 구체적인 청년 목회 전략을 세우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의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일반 대학생 조사	기독교인 대학생 조사
조사 대상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4년제)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독교 학부생(4년제)
표본 규모	총 500명(유효 표본)	총 300명
조사 기간	2025년 10월 10일~10월 14일(5일간)	2025년 10월 14일~10월 20일(7일간)
표본 추출	지역별 대학생 수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지역별 대학생 수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pm 4.4\%p$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5.6\%p$ (300명 분석시)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의뢰 기관	한동대학교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지역별 대학생 수는 2024 교육통계연보 4년제 대학교 학생 지역,성,연령으로 비례 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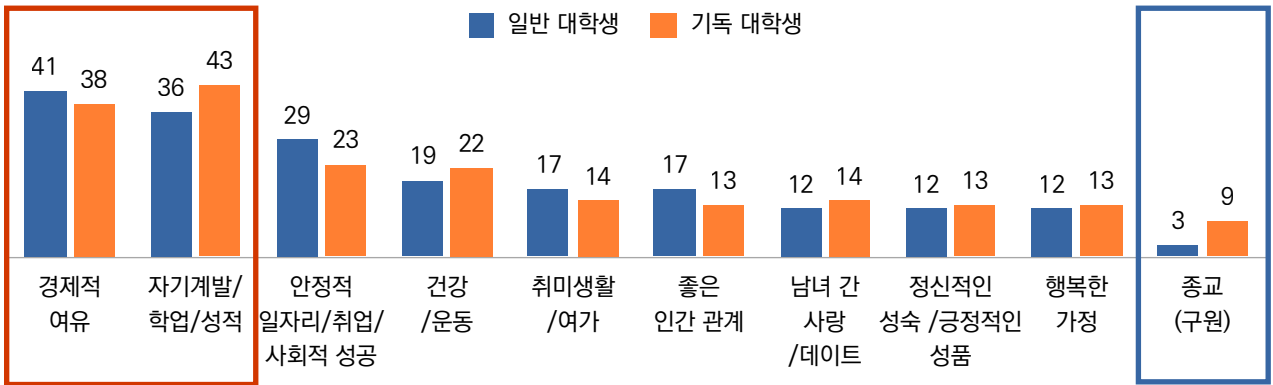
01

[가치관과 우선순위]

한국 대학생 일상의 최우선 가치, '경제적 여유'와 '자기계발'!

- 대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물은 결과(1+2순위 기준), 일반 대학생과 기독교 대학생 모두 '경제적 여유'와 '자기계발·학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 일반 대학생은 '경제적 여유'(41%)를, 기독교 대학생은 '자기계발·학업·성적'(43%)을 1순위로 선택해 순위상의 차이는 있었으나, 두 집단 모두 현실적 안정과 개인 성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기독교 대학생 중 '종교(구원)'를 핵심 가치로 선택한 비율은 9%에 불과해, 일반 대학생(3%)보다는 높지만 신앙이 일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기독교 청년들의 현주소를 확인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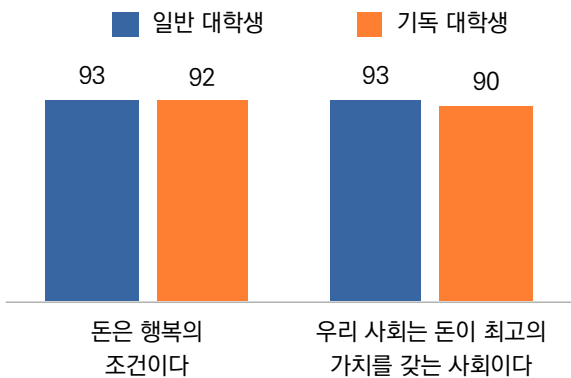
[그림]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1+2순위, %)



대학생 10명 중 9명, 행복의 조건은 '돈'!

- 대학생들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돈은 행복의 조건이다'에 일반 대학생(93%)과 기독교 대학생(92%) 모두 압도적 동의율을 보였다. 또한 '우리 사회가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사회'라는 인식 역시 90%를 상회해, 청년들이 돈을 단순한 수단을 넘어 사회적 생존과 행복을 위한 절대적 가치로 내면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물질주의 가치관 동의율 (매우+어느 정도 동의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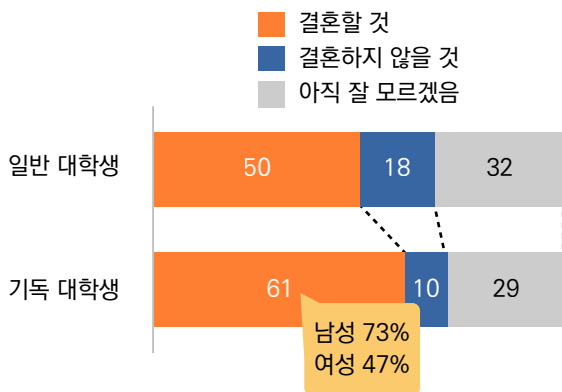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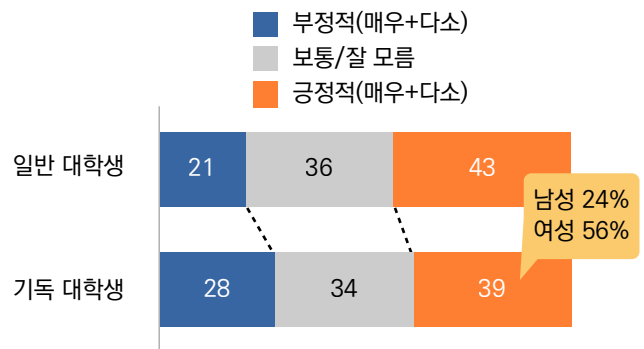
기독교 대학생, 일반 대학생보다 결혼 의향 11%p 높다!

-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결혼할 것'이라는 응답은 기독교 대학생이 61%로 일반 대학생(50%)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기독교 청년들이 일반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비혼주의(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한 태도는 두 집단 모두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혼주의에 대한 긍정률(매우+다소 긍정)은 일반 대학생 43%, 기독교 대학생 39%로 나타나, 기독교 대학생 10명 중 4명은 비혼을 삶의 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 기독교 대학생 내부에서는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비혼주의에 대한 동의율은 남성(24%)에 비해 여성(56%)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기독교적 가치관(결혼지지)과 현대사회 라이프스타일(비혼 긍정) 사이의 충돌이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결혼 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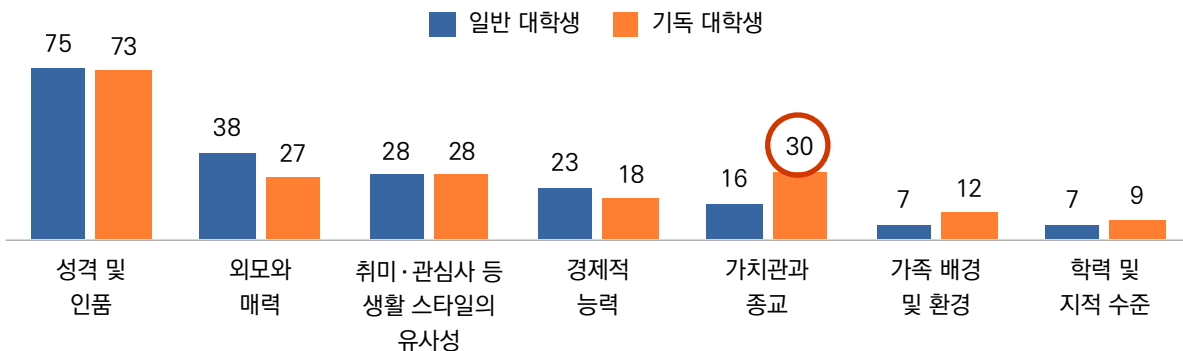
[그림] 비혼주의에 대한 인식 (%)



배우자 선택 1순위는 '성격과 인품', 기독교 대학생은 '종교' 중시!

- 배우자 선택 기준(1+2순위)을 묻은 결과, 일반 대학생(75%)과 기독교 대학생(73%) 모두 '성격 및 인품'을 압도적인 1위로 꼽았다. 이는 결혼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면의 됨됨이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가치관과 종교' 항목에서 나타났다. 기독교 대학생은 30%가 이를 주요 기준으로 선택해 일반 대학생(16%)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신앙적 일치감이 기독교 청년들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배우자 선택 기준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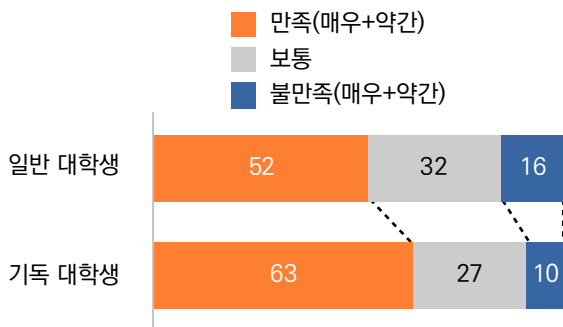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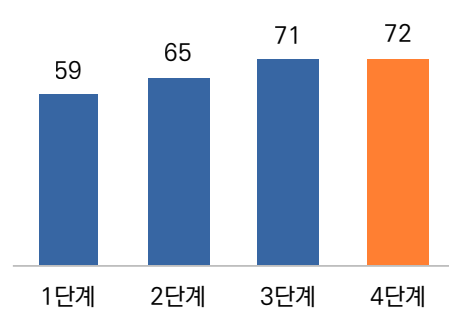
[생활 만족도와 정신 건강] 기독교 대학생, 신앙 깊을수록 일상 만족도 높다!

- 평소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매우+약간 만족)는 기독교 대학생(63%)이 일반 대학생(52%)보다 11%p 높아, 전반적으로 기독교 청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일반 청년들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특히 기독교 대학생의 경우, 신앙 단계가 깊어질수록 일상생활의 만족도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신앙적 성숙이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실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일상생활 만족도 (%)



[그림] 신앙단계별 일상생활 만족도 (기독교 대학생,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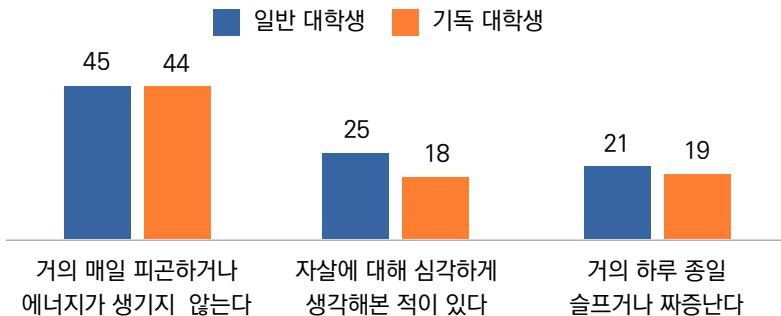
Note) 신앙단계 설명

-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기독교 대학생 10명 중 4~5명,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

- 대학생들의 삶에 대한 인식을 통해 현재 대학생들의 정신적-정서적 상태를 살펴본다.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워(일반 대학생 45%, 기독교 대학생 44%), 상당수 대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도 일반 대학생은 25%로 4명 중 1명에 달했다.
- 전반적으로 일반 대학생과 기독교 대학생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자살 생각 등 일부 항목에서는 기독교 대학생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림] 삶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그러함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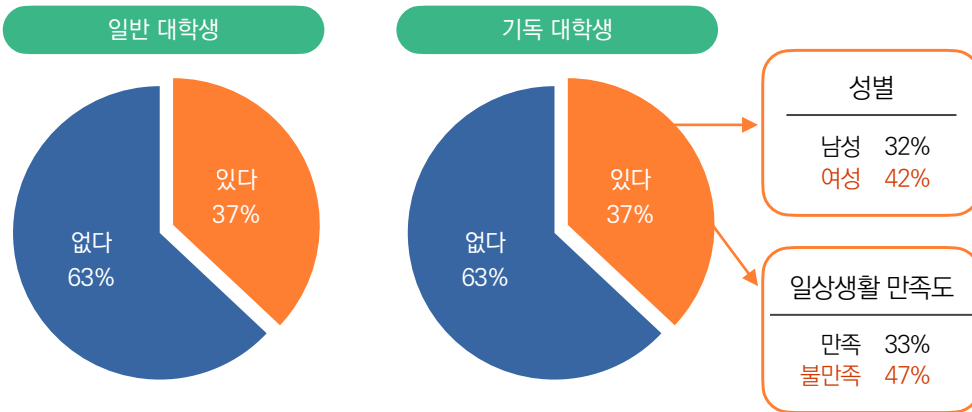


*4점 척도

기독교 대학생 3명 중 1명 이상, 최근 1년간 ‘불안·우울 등 정신질환’ 경험!

- 지난 1년간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 경험 여부를 묻은 결과, 일반 대학생과 기독교 대학생 모두 37%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3명 중 1명 이상꼴이었다.
- 정신질환 경험 비율은 성별과 삶의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42%로 남학생(32%)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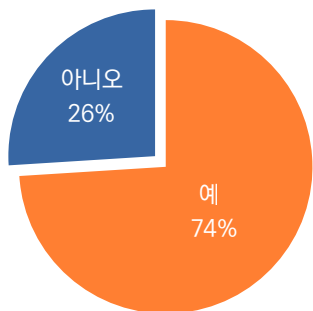
[그림] 지난 1년간 정신질환(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 경험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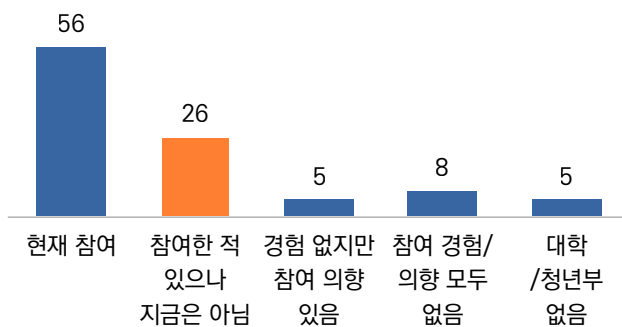
03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 기독교 대학생 중 가나안 학생 26%!

- 기독교 대학생들의 교회 출석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교회 출석률은 74%였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학생’ 비율은 26%로 조사됐다.
- 청년부 참여 현황을 보면 ‘현재 참여’가 56%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참여한 적 있으나 현재는 아님’이 26%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대학생 가운데 4명 중 1명꼴은 청년부 예배나 청년 공동체 활동에서 이탈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그림] 교회 출석 여부 (기독교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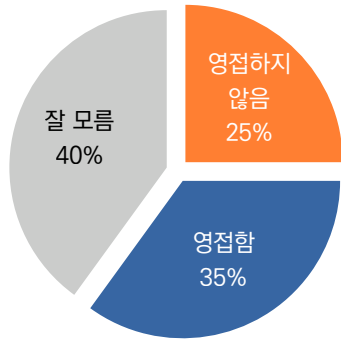
[그림] 청년부 참여 여부 (기독교 대학생, %)



기독교 대학생 4명 중 1명, '예수 영접 안 했다'!

- 기독교 대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 여부를 묻은 결과, '영접했다' 35%, '영접하지 않았다' 25%로 4명 중 1명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다.
- 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대학생 비율도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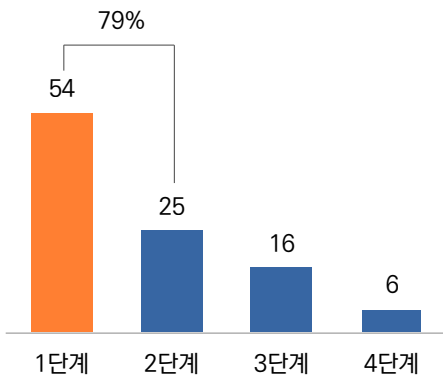
[그림] 예수 그리스도 영접 여부 (기독교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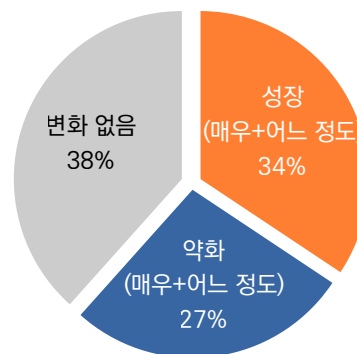
기독교 대학생 79%, 비교적 낮은 신앙 수준(1·2단계)!

-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단계를 살펴본 결과, 가장 낮은 신앙 단계인 1단계가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단계 25%까지 합치면 전체의 79%가 비교적 낮은 신앙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입학 후 신앙 변화를 묻은 결과는 약화 27%, 변화 없음 38%, 성장 3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더 높은 편이었다.

[그림] 신앙단계 (기독교 대학생, %)



[그림] 대학 입학 후 신앙 변화 (기독교 대학생)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Note) 신앙단계 설명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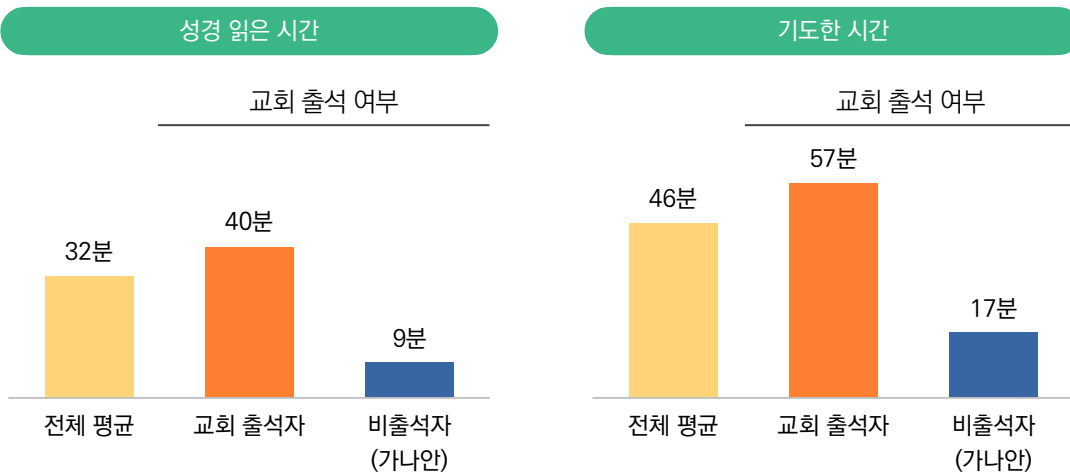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교회 출석 대학생, 비출석자(가나안)보다 성경·기도 시간 3~4배 많아!

- 기독 대학생 대상으로 '지난 일주일간 개인 경건 생활 시간'을 성경 읽기와 기도로 나누어 물은 결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간 성경 읽은 시간은 평균 32분, 기도 시간은 평균 46분으로 나타났다.
- 이를 교회 출석 여부별로 비교해보면 성경 읽은 시간은 출석자 40분, 비출석자 9분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기도 시간 역시 출석자 57분, 비출석자 17분으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그림] 지난 일주일간 경건 생활 시간 (기독 대학생)



이번호 요약

1. 대학생 10명 중 9명, 행복의 조건은 '돈'!

- 대학생들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돈은 행복의 조건이다'에 일반 대학생(93%)과 기독교 대학생(92%) 모두 압도적인 동의율을 보였다.

2. 기독교 대학생, 일반 대학생보다 결혼 의향 11%p 높다!

- 결혼 의향을 보면 기독교 대학생(61%)이 일반 대학생(50%)보다 '결혼할 것'이라는 응답이 11%p 높게 나타났다.

3. 기독교 대학생, 신앙 깊을수록 일상 만족도 높다!

- 평소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매우+약간 만족)는 기독교 대학생(63%)이 일반 대학생(52%)보다 11%p 높았고, 기독교 대학생의 경우 신앙 단계가 깊어질수록 일상생활의 만족도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나는 청년입니다 (김맥 저, CLC(기독교문서선교회))

관련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캠퍼스 복음화의 주역인 기독교 대학생들이 오늘날 어떤 가치관과 정서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조사 결과 기독교 대학생의 92%가 '돈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응답해, 이들의 가치관이 일반 청년들(93%)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오늘의 캠퍼스 사역이 단순한 종교적 훈련을 넘어 돈과 성공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삶의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독교 대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불안과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은 기독교 청년 대학생 사역이 이제 '정서적 돌봄'과 '신앙 양육'을 분리해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면서 정신적인 아픔이 치유되고, 한편으로 신앙적 훈련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돌봄 환경이 중요하다.

한편 기독교 대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 결혼 의향이 높고 일상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난 점은 희망적인 신호다. 특히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는 건강한 신앙 정체성이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정서적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기독교 대학생 사역의 핵심은 학생들이 캠퍼스, 가정, 친구관계, 교회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기독교 학생으로서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구현하도록 도움으로 이들을 캠퍼스 복음화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